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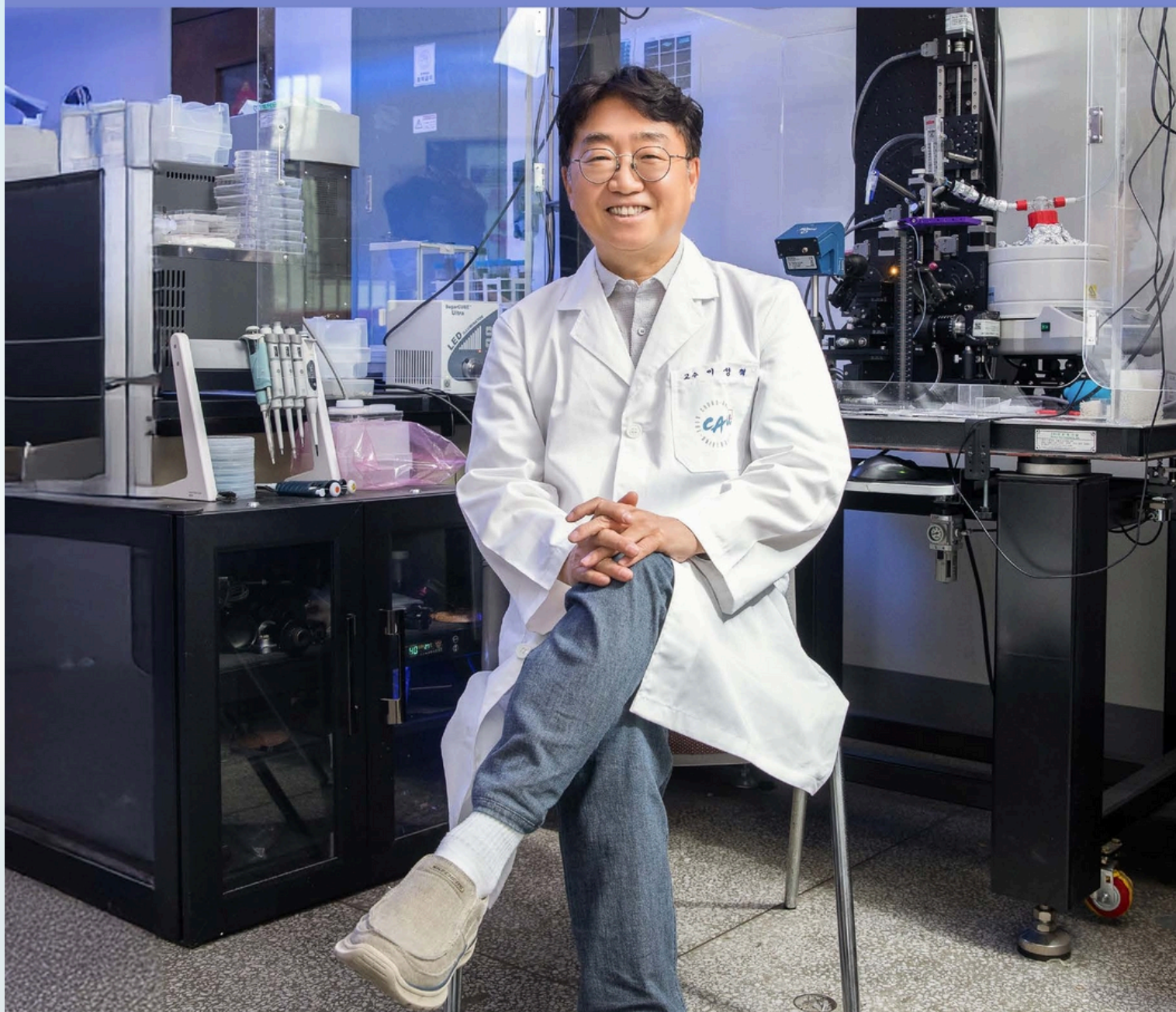
2026 기초연구  
리더연구사업 선정

9년간 연구비  
총 72억 원 지원

## 9년의 새로운 도전, 세계를 향한 연구의 길을 열다!

국가대표 연구자 선정, 기계공학부 이성혁 교수

2026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연구사업 '리더연구자(유형A)'를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이공계 연구자에게 주어지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국가대표급' 기초연구 프로그램으로 9년간 연 최대 8억 원씩 지원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당당히 국가대표 과학자로 선정된 자랑스러운 중앙인 이성혁 교수를 만났다.







▲ 2026년도 기초연구 리더연구사업 선정 연구과제 소개 이미지

**Q. 국가대표 과학자로 불리는 '리더연구자'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정 소식을 처음 접하셨을 때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실에서 회의 중에 주변 교수님께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처음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리더연구사업은 연구자라면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대표적인 개인 기초연구과제입니다.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함께 연구해 온 연구실 학생들과 졸업생들, 공동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앞으로 9년 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Q. 9년간 이끌어가실 『고효율·고투명 선택적 파장 흡수 플라즈모닉 광열 플랫폼』 연구에 대해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하면 '빛은 잘 통과시키면서도 필요한 태양광만 선택적으로 흡수해 열을 만들어내는 투명한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육안으로는 투명하게 보이지만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적외선 등 특정한 빛(파장)만 선택적으로 흡수해 열을 내는 신소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상용화되면 추운 날씨나 사막 환경에서 표면 온도를 스스로 2~5도 가량 높여 김이 서리지 않게 하는 '스마트 고글'이나 건물의 '스마트 윈도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와 드론의 광학 시스템, 해수 담수화 기술, 국방 분야 스텔스 기술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구현에도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앞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뚜벅뚜벅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만들게 됩니다.”

**Q. 중앙대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시고 지금까지 중앙대학교의 강단에서 가르치고 연구해 오셨습니다. 중앙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첫 번째 전환점은 모교로 임용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꿈을 펼치는 장이 모교라는 점이 저에게 큰 동기이자 동력이 되었죠. 제게 중앙대학교는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젊은 학창 시절 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며 학교에서 학업과 연구를 해 가며 흑석동 근처에서 한참 살기도 했거든요. 아내 역시 중앙대 동문이기도 하고요. 제 생애에서 정말 중요한 인연을 맺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삶의 장소입니다. 가장 빛났던 순간부터 좌충우돌의 역사까지 제 인생의 30년이 넘는 시간들과 추억이 이곳 중앙대에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Q. 연구자의 삶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중앙대 대학원에 진학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묵묵히 꾸준히 대학원의 일상을 해왔던 것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전하는 과정,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지금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Q. 국제학술지에 140편을 게재하실 정도로 꾸준한 연구로 장관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연구를 계속하실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연구자의 길을 '산에 오르는 과정'에 자주 비유합니다. 산 밑에서 상상하는 풍경과 중간쯤 올라갔을 때 마주하는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또 제자들에게도 '너무 먼 미래를 보며 괴롭히지 마라'고 조언합니다.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면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내 앞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뚜벅뚜벅 한 걸음씩 묵묵히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만들게 됩니다.

연구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제자들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제가 지도한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카이스트 등 국립대 교수가 되거나 산업체, 국가연구소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큰 보람은 없습니다. 연구는 학생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과정이에요. 가르치는 시간 속에서 저도 함께 배울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감사해요.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에서 학생들과 함께 연구 성과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Q. 앞으로 9년간의 긴 연구 여정이 펼쳐집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공교롭게도 이번 리더연구사업 지원 기간인 9년이 지나면 저는 정년퇴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단순히 논문을 쓰는 데에만 그치고 싶지 않아요. 해외 과학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굳건히 하고, 훌륭한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창업(스핀오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차원적인 협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Q. 교수님의 연구 여정을 응원하며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인 AI 시대를 살아가는  
중앙대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I-AX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속  
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정답을 알  
려줄 수 없는 시대이기에, 스스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조금 늦어도 괜  
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더욱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답을 해답지에서 찾으려  
하기보다, 질문을 다르게 하는 사람, 정답이 없는 문  
제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적  
극적으로 도전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 새로  
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 역시 학생들이 더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언  
제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  
랍니다.



▲ 멀티스케일 열공학연구실 Multiscale Thermal Engineering Laboratory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실 바로가기

▼ 왼쪽부터 히루니(석박통합과정 23), 김정호(박사과정 23), 김태준(박사과정 26), 이성혁 교수,  
김종은(석박통합과정 24), 황원영(박사과정 25), 김민우(석사과정 25), 주현우(박사과정 25)

